

엘리야 - 14번

예언적 병행: 엘리야의 정신으로 밀러파에서 Future for America까지

Jeff Pippenger

2023-10-21

1798년 종말의 때에,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울래 강에 관한 예언의 기별이 봉함되어 있던 것이 풀렸고, 윌리엄 밀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였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미국에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이 나라는 위대한 재림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저술은 먼 나라들에까지 전해졌다. 세상 어디든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마다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사방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대쟁투, 368.

1989년 끝의 때에,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 히데겔 강의 예언의 기별이 봉함이 풀렸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도록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Future for America가 세워졌다.

밀러파는 심판의 개시를 선포했고, Future for America는 심판의 종결을 선포한다. 밀러파의 예언적 틀은 이교가 먼저이고 그 뒤를 교황주의가 잇는,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이었다.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틀은 이교, 그 다음 교황주의, 그리고 그 다음 배도한 개신교라는 세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이다.

밀러주의자들은 빌라델비아로 시작하여 라오디게아로 전환했다. 퓨처 포 아메리카는 라오디게아로 시작하여 빌라델비아로 전환한다. 밀러주의자들이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옮겨 간 전환은 엘리야의 죽음과 그가 전한 모세의 맹세라는 기별과 연결되어 있었다. 퓨처 포 아메리카의 전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될 때, 밀러주의자들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사역을 이미 완수했다. 심판이 마칠 때, 곧 일요일 법령의 때에, 퓨처 포 아메리카 운동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사역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이사야 7장 8절에 제시된 65년 예언의 세 가지 이정표가,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결합되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의 짐승의 개신교 뿔이 세워질 때 반복되었다. 퓨처 포 아메리카의 역사에서는, 그 동일한 65년의 세 이정표가, 두 나라가 합쳐져 용처럼 말하는 공화주의의 뿔이 형성될 때 반복된다.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역사에서 그 세 가지 이정표 중 첫째는 1989년의 끝의 때였다. 둘째는 2001년 9월 11일이었고 셋째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이 될 것이다. 밀러파 역사에서는 이사야 7장에서 식별된 이정표들의 순서가 이사야서의 역사에서의 이정표들의 순서와 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Future for America의 역사에서는 그 순서가

육십오 년에 대한 첫 번째 언급과 일치하지만, 마지막에는 더 이상 시간적 요소가 없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 예언적 시간에 대한 어떤 적용도 사탄적 미혹이다.

이사야 7장에 제시된 대로의 세 가지 이정표의 순서를, 밀러파 역사에서의 그 역순과는 달리 고수하려는 예언적 정당성은 부분적으로 최초 언급의 원칙에 근거한다. 65년의 순서는 처음으로 이사야 7장에서 언급되며, 그 65년이라는 시간적 요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연수로 표현된 예언적 역사의 최종 성취가 마지막 때의 운동에서 일어날 때에도 세 가지 이정표는 여전히 식별되며 이사야의 역사에서와 같은 순서를 유지한다.

이정표의 원래 순서를 유지할 두 번째 근거는, 65년이 성취된 밀러라이트의 역사와의 관계, 그리고 밀러라이트 운동이 Future for America 운동과 맺고 있는 연속성이다. 밀러라이트의 역사는 시작이었고, Future for America는 끝이다.

밀러주의 운동은 1863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법적으로 조직되면서 끝났다. 그때, 1798년에 올라이 강의 환상의 봉인이 풀려 끝의 때에 도착했던 엘리야 사자는 침묵하게 되었고 봉함되었다. 1989년 끝의 때에, 히데겔 강의 환상의 봉인이 풀리자 엘리야 사자가 돌아왔다.

원래의 이정표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세 번째 근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두 뿔을 다루는 예언의 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밀러파의 역사에서는 두 나라가 결합되어 개신교의 뿔을 이루었다. Future for America의 역사에서는 배도한 개신교와 배도한 공화주의라는 두 뿔이 결합되어 짐승의 '형상'이자 또한 '짐승을 위한 형상'인 하나의 나라를 형성할 것이다. 종말의 역사에서 교회와 국가의 단일한 뿔을 이루기 위해 결합하는 두 나라는 일요법령에서 그 성취에 이른다.

짐승의 형상이 완전히 전개될 때, 일요일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결말을 확증한다. 그 형상의 전개는 시간에 걸친 과정이지만, 짐승의 표는 한 시점이다. 그 형상이 전개되는 시간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성전이 세워지는 데 걸린 46년으로 표현된다. 공화주의 뿔은 짐승의 형상이 전개되는 기간 동안 종교-정치적 성전을 건립한다.

짐승의 형상의 전개는 예언적으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그 위기는 애국자법의 등장을 신호했으며, 그것은 헌법 질서가 영국법의 원리에서 로마법의 원리로 바뀌었음을 의미했다. 영국법은 사람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원리에 기초하고, 로마법은 사람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는 원리에 기초한다.

2001년 9월 11일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세워지는 정치적 성전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으로도 묘사된다. 예언적 시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신교의 뿔이 영적 성전을 세우는 데 걸렸던 46년은 공화주의의 뿔이 그 종교-정치적 성전을 세워 올리는 때를 가리키되, 그것은 한 시점이 아니라 한 기간을 뜻한다.

이사야 7장에서 제시된 65년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이정표의 동일한 순서를 적용해야 하는 세 가지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언급의 법칙이다. 기원전 742년, 723년, 677년으로, 19년 뒤에 46년이 뒤따른다. 밀러주의 역사에서는 반대였다. 1798년, 1844년, 1863년으로, 46년 뒤에 19년이 뒤따랐다.

두 번째 근거는 엘리야의 역할과 사역에 관한 메시지의 연속성이다. 엘리야는 1798년에 종말의 때에 도착했는데, 그때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다(다니엘 8:14). 그리고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갈멜산에서의 대결에 이르렀고, 1863년에는 관습과 전통의 신학 속에 봉인되었다. 엘리야는 1989년에 다시 종말의 때에 도착했는데, 그때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다. 그는 예언적으로 2001년 9월 11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되어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게 된다. 엘리야의 역할과 사역의 연속성은 이사야 7장에 제시된 이정표들의 순서를 뒷받침한다.

땅의 짐승의 두 뿔에 관한 맥락은 두 뿔이 두 권세에서 하나의 권세로 전환되는데, 하나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시작에서, 다른 하나는 그 끝에서 일어남을 보여준다. 시작이나 끝의 두 막대기가 모여 한 나라로 결합될 때, 이는 시작에는 영적 성전을, 끝에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영적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상징된다. 그 거짓 성전은 교황의 성전의 형상으로, 그곳에서 교황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한다.

미국이 주일법의 때에 용처럼 말할 때, 교회와 국가가 하나의 막대기처럼 결합된 거짓 성전을 세워 두고 그 관계를 교회가 통제하게 됨으로써, 그것은 바로 그 형상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7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아들을 데리고 윗못의 수로 곁, 빨래하는 자의 밭 근처에서 아하스 왕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숨은 지금 나아가 세탁하는 자의 밭 큰길에 있는 윗못 수로의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사야 7:3.

"shearjashub"라는 단어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를 뜻한다. 밀러파 초기 운동의 남은 자들이 1989년 "Future for America" 운동에서 돌아왔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시작과 끝을 상징한다. 그들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려던 엘리야의 영을 전한다. 이사야는 악한 왕 아하스에게 엘리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 여러 악행 가운데서도 아하스는 성소의 봉사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앗수르 신전을 본떠 만든 신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스무 살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행하였고,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들과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전쟁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 왕 르신이 엘랏을 시리아에 회복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몰아내었으며, 시리아 사람들이 엘랏에 와서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았다.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이니 올라와서 나를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 곧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였다. 아하스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발견된 은과 금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이 그의

말을 듣고 다메섹을 치러 올라가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의 백성을 사로잡아 키르로 옮기고, 르신을 죽였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갔더니, 거기 다메섹에 있는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과 그 도안, 곧 그 모든 제작법대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완성하였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 그가 번제와 소제를 사르고, 전제를 붓고, 화목제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던 놋 제단을, 곧 그 집 앞, 그 제단과 여호와의 집 사이에 있던 것을 옮겨, 그 제단의 북쪽에 두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큰 제단 위에는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의 소제와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와 그들의 소제와 그들의 전제를 드리고, 그 위에 번제의 피와 희생의 피를 모두 뿌려라. 그러나 놋 제단은 내가 문의하는 데 쓰겠다 하니,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명한 모든 대로 행하였다. 아하스 왕이 또 받침대의 가장자리 장식을 잘라 내고 그 위에 있던 물두멍을 옮겼으며, 그 아래 있던 놋 소들 위에서 바다를 내려 돌로 깔아 만든 바닥 위에 두었다. 또 그들이 여호와의 집 안에 지어 놓은 안식일의 가림막과 바깥의 왕의 출입구를, 아시리아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옮겼다. 열왕기하 16:2-18.

앗수르의 왕은 북방의 왕을 대표하며, 이는 교황권을 상징한다. 악한 왕 아하스는 문자 그대로 유다, 곧 영화로운 땅의 실제 통치자였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빨래하는 자의 발 걸 윗못의 수로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 악한 왕은 남과 북 사이의 내전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거부하고, 보호를 구하려고 문자 그대로의 북방 왕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사야 7장의 정황은, 내전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동맹을 구하려 교황권에 손을 내미는, 영적 의미의 영광의 땅에 속한 한 지도자를 묘사한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반역한 사실은, 그가 북방의 왕을 찾아가 북방의 왕의 신의 성전 양식을 본떠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보내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한 경내에 그 모조 성전의 복제품을 세운 일로 드러난다. 악한 아하스 왕은 국가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의 협력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상징한다.

그 문자적인 반역은 교황권(북방 왕)의 예배의식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참된 예배를 중단시키는 영적 영화로운 땅의 지도자의 반역을 상징한다. 아하스의 반역은 영화로운 땅에 북방 왕의 성전을 본뜬 가짜 성전을 세우는 미국의 지도부를 상징한다.

이사야 7장의 예언적 맥락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최초 65년을 나타내며, 더 직접적으로는 그 짐승의 종말기를 나타낸다. 이사야 7장의 예언적 맥락에서 얻을 빛이 많지만, 여기서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의 시작으로 그 끝을 보여 주신다는 원리를 적용할 따름이다. 우리는 이사야 7장의 역사적 배경의 여파와 함의를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적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배도한 공화주의의 뿔이 배도한 개신교의 뿔과 결합할 때 그것이 거짓 성전의 건립을 상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북방 왕의 성전을 본뜬 가짜 성전의 건립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역사적 시기를 상징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시험이 되어 그 시험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이 될 것이며, 그 시험을 통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한 모든 자는 주 하나님 여호와와 의 밭 아래 설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온 진리를 저버리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7권, 976쪽.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 곧 라오디게아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전에 있게 될 '큰 시험'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시험'이다. 하나님의 인과 은혜의 시기 마감은 일요일 법령 때 일어난다. 짐승의 형상의 형성은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져 그때 절정에 이르는 한 기간 동안 일어난다. 짐승의 형상과 그 형성에 관한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진리이다. 그 형상의 형성은 두 막대기를 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비유되어 왔다. 그 두 막대기의 결합은 미국 역사의 시작에서 일어났고, 그 끝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처음에는 두 막대기가 결합되어 개신교의 뿌를 세웠고, 마지막에는 두 막대기가 결합되어 공화주의의 뿌를 세운다.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초기 역사에서 개신교 뿌의 성전이 세워졌다. 열아홉 년 후, 공화당의 뿌의 첫 번째 공화당 대통령이 어린양처럼 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들을 해방하는 과정을 시작했으나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하나님의 어린양은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다. 십자가는 노예해방 선언이다. 공화당의 뿌가 노예들을 해방하던 역사에서 개신교의 뿌는 노예제에 대한 예언을 거부했다. 주일법의 역사에서 공화당의 뿌가 영적 노예제를 재확립하고 있을 때, 개신교의 뿌는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것이다.

땅의 짐승의 공화주의 뿌의 마지막 대통령은 용같이 말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참된 개신교의 뿌가 기치로 높이 들어 올려질 것이다. 이는 실제의 메대-바사 제국과 영적 메대-바사 제국의 두 뿌에 예표되어 있다. 성경 예언에서 실제의 메대-바사 제국은 둘째 나라였고, 성경 예언의 여섯째 나라는 영적 메대-바사 제국이다. 다니엘서에서 메대-바사의 숫양은 두 뿌를 가졌는데, 미국도 그러하다. 그러나 둘째 뿌는 나중에 났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 앞에 두 뿌가 있는 숫양 하나가 서 있었고, 그 두 뿌는 다 높았으나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높았으며, 더 높은 것이 나중에 났더라. 다니엘 8:3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두 뿌에 관한 예언적 역사에서, 먼저 개신교의 뿌가 식별되었으나, 상승하여 사명을 마치기보다는 라오디게아적 영적 눈먼 상태의 광야로 물러섰다. 공화주의의 뿌가 용처럼 말하며 머지않아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키는 그 역사적 때에, 참된 개신교의 뿌가 마침내 기치로 높이 들려질 것이다. 짐승의 형상 형성으로 대표되는 시험을 알아보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만이, 은혜의

시기가 달힐 때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시험 과정을 식별해 주는 기별은, 그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해 지금 봉인이 풀리고 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열왕기상 18:21.